

2019년 7월 국내·외 위성 관련 산업동향

<목 차>

I . 위성관련 뉴스

1. 아마존, 美FCC에 통신위성 발사 허가 신청 2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6007400091?input=1195m>
2. EU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고장 1주일 만에 재가동 3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129000098?input=1195m>
3. 지구 위협 우주쓰레기 최소 50만개...위성도 방해 5
(원문) <http://news1.kr/articles/?3674005>
4.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 본격화 7
(원문)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2311005782399>
5. 中민영기업, 최초 상업로켓으로 인공위성 발사 성공 8
(원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6_0000723503&cID=10101&pID=10100

II . 위성관련 보도자료

1. 천리안위성 2A호, 스마트한 기상정보 서비스 본격 시작 10

II. 보도자료

1 천리안위성 2A호, 스마트한 기상정보 서비스 본격 시작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9. 7. 26.

□ 7월 25일부터 천리안위성 2A호 정식서비스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작년 12월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가 궤도상시험* 등 7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7월 25일부터 정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힘

※ △본체 성능시험 △기상탑재체 기능시험 △자료처리시스템 운영시험 등 위성이 우주공간 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과정

- 천리안위성 2A호는 고해상도 컬러 기상영상과 52종의 다양한 기상 산출물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기상관측, △수치·초단기예보, △기후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 천리안위성 1호 대비 2A호 기상관측 성능 비교 >

구분	천리안위성 1호	천리안위성 2A호	비 고
탑재체해상도	(가시채널) 1km (흑백) (적외채널) 4km	(가시채널) 0.5km (컬러) (적외채널) 2km	4배 증가
자료전송속도	6.2 Mbps	115 Mbps	18배 증가
관측속도	(한반도) 15분 이하	(한반도) 2분 이하	8배 증가
산출물 수	총 16종	총 52종	3배 증가
운영수명	7년	10년	1.5배 증가
발사일	2010. 6 27	2018. 12. 5	-

- 먼저, 고해상도 컬러 기상영상과 다양한 기상산출물을 활용하면, 육안으로 구름과 산불연기·황사·화산재 간 구분이 가능해져 분석 정확도가 높아짐
- 또한, 천리안위성 2A호의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실황감시가 강화(한반도 주변을 2분 간격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달도 조기 관측이 가능해지고, 태풍 중심위치와 이동경로의 예측도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 천리안위성 2A호의 기상영상은 △기상청(www.kma.go.kr) 및 국가기상 위성센터(nmsc.kma.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며, 선박용 해양 기상 정보방송* 등 기상방송 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 신청하면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음
 - * 해양 선박을 위한 위성영상, 해상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천리안위성 2A호가 각종 테스트를 무사히 마치고 기상서비스를 정상 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명실공인 독자개발 정지궤도위성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면서, “내년에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천리안위성 2B호는 내년 상반기 발사를 목표로 총 조립을 완료하고, 열진공시험 등 우주환경시험을 수행 중임. 천리안위성 2B호는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입체적으로 감시하여 대기환경 예보 및 경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과 해양자원 감시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